

남미 경제통합의 현황과 전망*

— MERCOSUR를 중심으로 —

박윤재 · 윤현덕

1991년 3월 26일 아순시온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는 1995년 1월 1일 까지 1) 상품, 서비스, 금융자원 및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이동, 2) 비관세 장벽들의 철폐, 3) 역외수입에 대한 공동관세 적용, 4) 거시경제정책 및 무역, 농업, 운송 및 통신분야 등의 정책 조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거의 40년이나 소요된 일을 불과 4년만에 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막상 적지 않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특히 MERCOSUR GDP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역외수입에 대한 공동관세율, 상당기간 보호조치를 허용하는 무역자유화 예외품목, 상이한 경제정책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빚기도 하여 남미에서 여러 차례 시도되었던 여타의 경제통합 노력과 마찬가지로 MERCOSUR도 유명무실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지경에 까지도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고, 그간에 표출된 회원국들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실무작업을 거쳐 1994년 8월 5일 부에노스 아이레스 정상회담에서 4개국 정상들은 공동시장형성의 의지를 재천명하며 1995년 1월 1일부터 남미공동시장을 출범시키기로하는 협정을 조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아순시온협약 이후에 회원국들간에 표출되었던 심각한 이견과 갈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발전이었다.

역내에서 민주화 개방화 민영화가 계속 확대되고 경제적 안정기반이 구축되고, 나아가 칠레와 블리비아를 위시한 주변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MERCOSUR의 영역이 확대된다면, 국제무역환경에서 MERCOSUR가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MERCOSUR의 추진배경과 목적, 진척경과 및 현재의 상황, 회원국들의 교역 및 투자여건, 한국과의 경제관계, 공동시장 형성의 효과 및 활성화의 요건 등을 살펴본다.

I. 서 론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의 남미 4개국 정상들은 최근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고 지난 3년여의 기간동안 추진해온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예정대로 1995년 1월 1일자로 출범시키는 협정에 서명을 하였다. 남미지역에서 지역국가들 간의 경제통합 노력은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못된다.

이차세계대전 이후 남미지역에서 지역국가들 간에 추진되어온 주요 경제통합 관련 기구들을 보면,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LAFTA),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LAIA), 브라질-아르헨티나 통합협약, 안데안공동시장(ANCOM), 칠레-멕시코 자유무역협정, 미주

* 이 글은 교육부의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통합구상 등을 들 수 있고 종미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상당히 많다. 이와 같이 중남미 지역에서 경제통합이 빈번하게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원래의 기구창설 목표에 비하여 그 추진성과가 크게 못 미치거나 그 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남미에서 추진되고 있는 MERCOSUR 공동시장이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유럽공동시장이나 NAFTA에 비할 만큼 그 규모나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못하지만, 현재의 단계에서 총인구 약2억, GDP 8천억달러, 상호교역 규모 80억달러를 상회하는 대규모 경제단위이며, 지난 3년여의 기간에 공동시장형성에 장애가 되는 많은 요인들을 어렵게나마 극복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회원국들이 처음 목표한 바대로 주변국가들을 받아들여 공동시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게 되고, 현재와 같이 이 지역국가들의 경제회복 추세가 더 지속된다면 MERCOSUR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신장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공동시장 완성을 향한 앞으로의 진로에 많은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MERCOSUR의 장래 및 효과 등을 전망하기는 어려우나, 이 지역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잠재력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남미에 대한 교역과 투자는 타지역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의 교역 및 투자여건 만을 감안하면 남미시장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하기에는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의 시대에는 남미국가들의 시장특성 및 경쟁특성이 변화하는 방향과 정도에 따라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소의 잡음을 내면서도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는 MERCOSUR 공동시장에 관하여 좀더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그 내용과 특성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 1995년 1월 1일 출범이 예정되어 있는 MERCOSUR 공동시장과 관련하여, 이의 추진배경과 목적, 진척 경과, 현재의 상황, 회원국들의 교역 및 투자여건 등에 관해 분석 정리함으로써 현재 남미에 일고 있는 주요 변화를 파악 정리하고, 한국과의 경제관계, MERCOSUR 공동시장 형성의 효과와 영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선결요건을 살펴봄으로써 MERCOSUR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는데 주력하였다.

II. MERCOSUR 경제통합의 추진 배경과 목적

1. 추진배경

남미에서 지역국가들 간의 교역증대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하고자 시도한 적은 여러 번 있었다. 이 지역의 경제통합시도는 1960년의 몬테비데오 협약에 의거 설립된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ALALC/LAFTA)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협정의 주목적은 서명국들간의 무역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교역증진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관련국가들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하여 논란의 여지가 가장 적은 품목에 있어서도 무역의 자유화는 달성하기 어려웠고, 석유와 밀과 같은 중요품목에 관하여 절충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러서 협상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EIU on Brazil, 1992-1993).

1967년 4월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에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정상들은 다시 모여 회담을 가지게 되었고, 이들 회원국들은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ALALC)과 중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을 두 개의 축으로 삼아 라틴아메리카 공동시장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6개월도 못가서 각국들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고, 경제통합의 노력은 아무런 효과도 거둘수 없었다.

1978년 말에 이르러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파라과이, 우루과이등 1960년도 몬테비데오협약의 11개 서명국들은 ALALC의 재구성을 추진하기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20개월 후에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ALADI/LAIA)이 설립되었다. 이 무역체제는 회원국들 간의 쌍무적 무역협정을 기축으로 지역국가 간의 무역증진을 도모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ALADI의 규범 하에 체결된 가장 중요한 쌍무적 무역협정은 1986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협정이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양국의 경제규모가 이 지역경제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지역의 대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종래의 다자간 무역체제 하에서 무역증진을 도모하기 보다는 우선 양국 간의 교역증대를 통하여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실리추구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것이다(EIU on Brazil, 1992-1993).

양국의 경제통합과정이 급속한 추진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내부적으로는 무엇보다 양국정부가 군사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이양되면서 개방적인 민주정부가 들어섰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세계경제의 개방화 및 국제화 추세에 따라 양국도 개방경제 및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이차대전 이후 여타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수입대체 정책을 위주로 내부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여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자국 유치산업의 발달을 위하여 높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대외적으로 구축하였다. 그 결과 50년대와 60년대에 다소의 경제성장을 성취할 수도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비효율적이며 불안정한 경제를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각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세계시장 진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관세 및 투자장벽을 과감하게 축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국제협상에서 남미국가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에도 양국은 외교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외채협상과 인플레이션을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각기 상대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개방 경제체제의 도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국제적인 대세이나, 다자간 무역체제 하에서는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려 단시일내에 시장통합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우선 양국간의 경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보았던 것이다.

양국은 1988년에 “통합, 협력, 발전 협약(Tratado de Integración, Cooperación Y Desarollo)”을 체결했다. 동 협약은 양국 경제통합의 기본원칙과 함께 식품교역 부터 핵 에너지 사용에 이르기 까지 방대한 품목과 거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양국간의 경제통합의 움직임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90년 이들 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양국에 경제적의존도가 높은 파라과이와 우루과이가 경제통합에 참여희망 의사를 표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91년 3월에 MERCOSUR 설립추진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2. 아순시온협약의 목표와 내용

여러가지 무역장벽과 유럽 및 북미시장에 대한 수출 우선주의로 인하여 수십년간 상대방을 수출시장으로서는 전혀 고려해오지 않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최근들어 각기 상대국의 매력을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상호협력과 상호의존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폴류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에서는 MERCOSUL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에서는 MERCOSUR로 표기되고 있는 공동시장 설립을 위한 협약이 1991년 3월 26일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에서 이들 4개국 간에 조인되었다. 이들 4개국이 MERCOSUR 공동시장 형성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아순시온협약의 서두에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나타나있다.

- 1) 경제통합을 통한 시장확대는 이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2) 이러한 목표는 상호 거시경제정책의 조율과 보완성의 유지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 3) 경제통합을 통한 시장확대는 국제적 추세로서 많은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를 시도하고 있는 바이며,
- 4)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우리의 경제통합추진은 시의적절한 대응조치이다.
- 5) 우리 4개국의 협정은 향후 점차적으로 전체 라틴 아메리카 통합에 기여할 조치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 6)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질을 개선함으로써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과학기술진흥과 경제의 현대화가 달성되어야 함을 확신한다.
- 7) 이러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해서는 상이한 국민들 간의 유대를 강화할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들 4개국은 1995년 1월 1일 까지 1) 상품, 서비스, 금융자원 및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이동, 2) 비관세 장벽들의 철폐, 3) 역외수입에 대한 공동관세 적용, 4) 거시경제정책 및 무역, 농업, 운송 및 통신분야 등의 정책 조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아순시온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동시장위원회(The Council of the Common Market)와

공동시장그룹(The Common Market Group)을 결성한다.

○ 위원회는 공동시장의 최상위 기관으로서 공동시장의 목표달성과 공동시장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책임을 진다. 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외무장관과 경제장관으로 구성된다.

○ 공동시장그룹은 공동시장의 집행기관으로서, (1) 협약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2) 위원회가 채택한 결정들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며, (3) 무역자유화 프로그램의 실행, 거시경제 정책의 조정, 제3자와의 교섭 등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들을 제의하며, (4) 공동시장결성이 단계적으로 진척되기 위한 실무계획의 작성 등의 책임을 진다.

○ 공동시장그룹은 (1) 통상문제, (2) 관세문제, (3) 기술적 표준, (4) 무역관련 재정 및 통화정책, (5) 육상운송, (6) 해상운송, (7) 산업 및 기술정책, (8) 농업정책, (9) 에너지 정책, (10) 거시경제정책 조정을 주관할 10개의 소그룹으로 구성된다.

○ 회원국들은 점진적 자동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나가기로 하는데, 〈표 1〉의 일정계획에 따라 무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

〈표 1〉 무관세교역 품목의 확대일정

시 한	자유교역비율
1991년 6월 30일	47%
1991년 12월 31일	54%
1992년 6월 30일	61%
1992년 12월 31일	68%
1993년 6월 30일	75%
1993년 12월 31일	82%
1994년 6월 30일	89%
1994년 12월 31일	100%

○ 이상의 관세율 인하 일정계획은 각 회원국이 제출한 예외 품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ALADI 품목분류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각 회원국별로 다음과 같이 예외품목을 허용한다.

아르헨티나 : 394품목 브라질 : 324품목

파라과이 : 439품목 우루과이 : 960품목

○ 각 회원국은 이를 예외품목들도 1995년 말 까지 매년 20%씩 축소조정해나간다.

○ 1994년 12월 31부로 공동시장으로부터 모든 비관세 장벽은 제거한다.

III. MERCOSUR 공동시장의 추진상황

1. 아순시온 협약 이후의 추진경과

아순시온협정은 1994년 말 까지 이들 4개국 간에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또한 역외국가들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공동의 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골자로 하였다. 이에 따라 치즈 및 철제문을 위시한 많은 상품에 대한 관세율이 이미 80퍼센트 이상 감축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거의 40년이나 소요된 일을 불과 4년만에 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막상 적지 않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특히 MERCOSUR GDP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역외수입에 대한 공동관세율, 상당기간 보호조치를 허용하는 무역자유화 예외품목, 상이한 경제정책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빚기도 하여 남미에서 여러 차례 시도되었던 여타의 경제통합 노력과 마찬가지로 MERCOSUR 도 유명무실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지경에 까지도 이르게 되었다. MERCOSUR 공동시장의 설립에 걸림돌이 된 사건과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아르헨티나의 일방적 관세 인상조치

널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자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2년 10월에 아르헨티나정부가 일방적으로 여타의 MERCOSUR 국가로 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인상 조치를 취하게 되자 다른 회원국들은 일제히 아르헨티나를 비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른바 할증세(statistical tax)를 3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상하였는데, 실제에 있어 ‘할증세’란 아르헨티나가 수입관세를 인상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는 물론 원래의 MERCOSUR의 기본취지에 위배되는 일이었으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세를 인상함으로써 특히 브라질상품의 급속한 수입증가 추세를 억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아르헨티나의 조치에 대하여 심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브라질 측은 아르헨티나 시장에서 브라질 상품의 경쟁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르헨티나의 통화가 과도하게 평가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하였다(EIU on Paraguay, 1993).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이 자국에 대해 불공정한 수출거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조치는 불가피 한 것이라고 응수하였다. 아르헨티나의 까발로(Domingo Cavallo) 경제장관은 브라질 기업들이 아르헨티나에 덤핑수출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서며, 브라질산 상품들에 대한 보호적 대응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양국간의 관세율 인하로 인하여 많은 브라질산 상품들의 경쟁력이 아르헨티나 시장에서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철강, 냉장고, 제지, 농업기계, 섬유 및 화학제품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에는 계속하여 상당한 갈등과 불만이 누적되게 되었다(EIU on Arjentina 1993-1994).

2) 정보통신기기, 컴퓨터 및 정밀화학제품의 역외수입에 대한 공동관세 책정에 관한 이견

이들 4개 회원국들은 역외로 부터 수입하는 거의 모든 상품들에 대하여 무관세에서 20%까지의 공동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수월하게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역외의 경쟁으로 부터 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품목의 선정에 대해서는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최근까지 회원국들은 첨예하게 대립을 보여 왔다. 이들의 갈등은 특히 자본재, 컴퓨터 및 통신장비를 둘러싸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에 전개되었다.

브라질은 이들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브라질제품이 미국, 일본 및 유럽제품에 비하여 아직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일정기간 관세조정을 통하여 보호조치를 허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특히 정보통신 및 컴퓨터 분야에 있어서 브라질의 산업기반과 기술력은 국제적으로 보아서 상당히 낙후된 수준이지만, 이를 보호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브라질은 시장보호조치의 강화를 희망하였다 것이다.

브라질의 입장과는 달리 정보통신기기, 컴퓨터 및 자본재 부문에 이렇다 할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한 아르헨티나는 가능한한 저율의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의 생산설비 현대화와 생산효율 증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브라질제품 보다는 미국, 일본 및 유럽으로부터 이들 부문의 첨단기기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아르헨티나는 역외로부터 수입하는 첨단기기에 대하여 대부분 무관세 반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브라질은 아르헨티나가 정보통신기기, 컴퓨터 및 자본재 부문의 브라질 제품에 대하여는 역외 수입품에 비하여 우대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즉 이들 상품에 대하여는 다음 세기 초까지 20%에서 35%에 달하는 공동의 관세율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르헨티나 또한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이들 두 주역국가 간의 첨예한 대립은 MERCOSUR의 장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되어왔다. 이들 두 국가에 비해 경제규모가 위낙 영세한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의 이러한 두 국가간의 논쟁에 전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Barham and Foster, 1994).

3) 일반 역외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율에 관한 차이

파라과이는 일반 역외수입 제품에 대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보다도 저율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종래에 파라과이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보다 낮은

관세로 상품을 수입한 뒤에 이들을 다시 이웃에 접경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인접국들로 密賣의 방식으로 수출해 많은 돈을 벌어왔다.

역외수입 제품에 저율의 관세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측은 물론 자국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브라질이었다. 여타의 나라들도 파라과이가 저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행동을 허용하는 것을 꺼려했다. 왜냐하면 이를 허용하면 특정품목들에 대해 서는 파라과이가 MERCOSUR 시장진입의 관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더불어 파라과이 내부에서는 MERCOSUR 공동시장의 회원국이 되는 일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강력하게 대두되게 되었다. MERCOSUR 공동시장이 결성되면 파라과이의 동부 국경지대에 소재하는 Ciudad del Este와 같은 도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많은 파라과이 국민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였다. 접경지역의 이 도시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로 부터 들어오는 단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면세판매를 통해서 상당한 재미를 보아왔다. 파라과이의 낮은 세율과 낮은 수입관세, 횡행하는 밀수와 탈세로 인하여 범죄가 빈번한 이 도시의 물가는 모든 품목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 비해 무척 낮았다. 이 도시의 소매 매출은 연간 75억달러를 상회하였고, 종사하는 인구만도 6만명이 넘었다. MERCOSUR가 정식으로 출범이 되면 이러한 도시는 더 이상 종전과 같이 번영을 누릴 여지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현재 파라과이 정부는 MERCOSUR가 출범하는 1995년이 되면 이 도시를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EIU on Paraguay).

4) 상이한 정치경제적 상황

경제적 차이도 문제를 야기한다. 아르헨티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높은 경제성장도 달성하게 된 반면 브라질은 고율의 인플레와 방만한 지하경제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르헨티나의 메넴 대통령은 안정된 기조 위에 그의 정치력을 십분 잘 발휘하고 있으나, 브라질의 정치는 여전히 혼돈의 상태에 있다.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고율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현재로서는 성공하고 있다. 지난 해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율은 7.4퍼센트 수준에 그쳤으나, 브라질의 인플레율은 연간 2천퍼센트를 상회하였다. 실제의 화폐가치에 비하여 아르헨티나 폐소는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브라질 크루제이로는 실제의 가치 보다 낮게 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이 자국에 대하여 덤핑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폐소의 고평가가 아르헨티나의 무역수지적자의 주범이라는 반론을 전개하는 가운데 양국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5) 국가간 상이한 노동비용과 농산물가격의 차이에 관한 문제

이들 국가들 간에는 노동비용, 농산물가격 및 에너지가격과 같은 문제를 두고 또한

대립관계가 야기되었다.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노동자들의 최저 월급여 60-70달러는 아르헨티나의 200달러에 비하여 엄청나게 낮은 것이라고 불평하는가 하면, 이에 응수하여 브라질은 사회복지제도 면에서, 특히 출산 및 설업에 대한 브라질의 사회복지제도가 아르헨티나에 비해 훨씬 잘 되어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응수하고 있다(EIU on Brazil, 1994).

특히 아르헨티나의 노동조합총연합(CGT)은 정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지역 내에서 가장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브라질에 대해 염려와 불안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MERCOSUR의 형성이 아르헨티나의 근로자들에게 실질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관련 문제가 회원국들 간에 표출됨에 따라 열한번째 소그룹을 공동시장그룹에 포함시켜 회원국간 노동관련 정책을 조율하도록 하였다.

브라질 측에서의 걱정도 없지 않다.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와 접경을 하고 있는 브라질 남부지역에서는 자신들에 비해서 농토의 값이 싸며 더욱 비옥한 국경 너머 아르헨티나 지역에서 생산 공급되는 농산품들과 경쟁을 해야한다는 사실에 농민들이 매우 걱정을 하고 있다. 특히 Rio Grande do Sul 州는 MERCOSUR 형성에 의해서 가장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주, 쟈, 채소 등은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많은 수의 농민이 이들 업종에 참여하고 있어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루과이 기업인들 및 농민 또한 지역시장통합이 자국들의 산업에 많은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들은 1995년부터 자유무역이 실시되기 이전 까지의 과도기 기간동안 일련의 보호조치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밀과 관련하여 우루과이 농산부는 향후 이삼년 간은 일련의 보호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아르헨티나로 부터 자국산 밀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EIU on Uruguay, 1994).

이러한 와중에서 아르헨티나의 메넴대통령은 NAFTA 가입에 적극 관심을 표명하였고, 미국도 한 때 아르헨티나의 NAFTA 가입이 유력할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 및 정치가 혼란한 브라질은 NAFTA 가입 차기후보로서 고려될 수 없는 여진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아르헨티나는 NAFTA 가입의 가능성을 對브라질 협상력 강화의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우여곡절을 거치고, 그간에 표출된 회원국들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실무 작업을 거쳐 1994년 8월 5일 부에노스 아이레스 정상회담에서 1995년 1월 1일부터 남미공동시장을 출범시키로하는 협정을 조인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상당한 갈등적 관계 속에서도 MERCOSUR 공동시장 출범을 위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각기 양국간의 관계를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MERCOSUR는 최근 까지도 서로 적대적인 상대로서 인식 해오던 이들 양국 간의 정치적 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추진되어오고 있다.

2. 부에노스 아이레스 협정

아르헨티나의 Menem, 브라질의 Franco, 파라과이의 Wasmoy 및 우루과이의 Lacalle 대통령은 1994년 8월5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역내교역을 증진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1995년 1월1일자로 MERCOSUR를 정식 출범시키기로하는 협정에 조인을 하였다. 이는 아순시온협약 이후에 회원국들간에 표출되었던 심각한 이견과 갈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발전이었다.

이 협정의 골자는,

- 역내 무역액의 85퍼센트를 차지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장벽을 완전히 철폐하며,
- 역외수입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채택하고,
- 개별 회원국내의 산업보호를 위해 각국당 300개씩(파라과이는 399개)의 공동관세 적용의 예외품목을 두며,
- 회원국 부품이 60퍼센트 이상 사용된 제품만 역내제품으로 인정하는 원산지규정을 채택한 것 등이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정상회담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주변국가들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MERCOSUR 공동시장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기기로 하는 원칙을 명료히 한 점이다. 이 정상회담에는 칠레의 Frei대통령이 업저버의 자격으로 참석하였는데, 칠레는 그동안 MERCOSUR 보다는 NAFTA 쪽에 더 관심을 기울여 왔었다. NAFTA가 남미국가를 포함하게 된다면 제 1호 가입국은 칠레가 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칠레는 MERCOSUR에 대해서는 매우 유보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NAFTA 가입이 예상했던 만큼 그렇게 순탄치 만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자 MERCOSUR에 대해 종전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 것이다. NAFTA의 가입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칠레가 현재 MERCOSUR 시장에 대해 누리고 있는 특혜마저 잃게될까 두려웠던 것이다.

칠레와 볼리비아에게는 준회원국의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칠레의 가입은 MERCOSUR의 양적 질적 향상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현재 대서양 연안에만 미치고 있는 영역을 태평양까지 확장함을 의미하기에 기존의 회원국들에게도 매우 바람직한 조치가 될 것이다. 부통령 Cardenas를 참석시킨 볼리비아도 안데안협약(Andean Pact) 회원국들과의 관계유지 보다는 MERCOSUR와의 협력이 자국에 더 유익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Barham and Foster, 1994).

이와 같은 회원국 확대의 원칙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미지역에서 MERCOSUR를 주축으로 하여 보다 광범위한 경제블럭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최근에 안데안협약국들과 MERCOSUR가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 범남미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희망대로 그러한 광대한 자유무역지역이 형성되면 국제사회에서의 브라질의 경제적 위상은 엄청나게 신장될 것이다.

둘째는 회원국들 간의 심각한 입장차이와 갈등으로 인하여 최근까지만 해도 MERCOSUR도 중도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회원국들 간에 양보와 타협이 이

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각 회원국들이 MERCOSUR에 대해 부여하는 비중과 기대가 그만큼 막중함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각 회원국 간의 상이한 거시경제적 여건과 정책목표의 차이점을 수용하기 위하여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정상회담은 대단히 복잡한 추진일정과 예외조항들을 도출해 내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Oxford Analytica, 1994).

1) 공동역외관세 예외품목

모든 회원국들은 역외로 부터의 수입에 대해서 공동관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품목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는 300개의 품목, 파라과이 는 399개의 예외품목을 허용한다. 파라과이는 2005년 까지 예외품목을 인정하나, 나머지 3개국은 2000년 까지만 예외품목을 인정한다. 부품등의 역내 조달율이 60% 이상인 상품들 만이 역내에서 무관세로 교역될 수 있는데, 다만 파라과이에 대해서는 2000년 까지는 50%의 국산화율을 적용한다. 파라과이에 대한 모든 특별대우는 2005년 까지만 허용한다.

2) 자본재 수입관세

역외로 부터의 자본재에 대한 수입관세는 저율의 관세부과를 원하는 아르헨티나와 높은 관세로써 자국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브라질 간에 가장 큰 쟁점이 되어온 문제인데, 이를 양국에서는 2001년이 되면 자본재에 대한 관세는 14퍼센트가 된다. 우루과이 와 파라과이는 2006년 부터 이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경과기간 동안의 관세율은 명시화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아르헨티나는 자국산업의 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계속해서 무관세를 적용할 것이고, 브라질은 당분간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재의 경우는 부품 등의 역내 조달비율이 80% 이상되어야 무관세로 역내에서 교역될 수 있다.

브라질에서 특별히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어온 컴퓨터장비에 대한 관세는 2006년 이전까지 16퍼센트로 인하되어야 한다. 또한 경과기간 동안의 관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브라질에게 있어 중요한 자동차 및 설탕에 대해서는 향후 90일 이내에 합의를 도출해내기로 하였다.

3) 민감품목 (Sensitive products)

일시적 특별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아르헨티나가 적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10% 할증세가 향후 4년간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년 10월 31일 까지 결정하기로 하였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철강, 유화, 제지, 섬유 등 브라질과의 경쟁이 힘겨운 모든 부문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브라질 측

이 크게 양보한 결과이다.

4) 경제특구

기존의 자유무역지대로부터 수입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역외 공동관세를 적용키로 한다. 그러나 지리적 전략적 특수성이 있는 브라질의 Manaus자유무역지대와 아르헨티나의 Tierra del Fuego자유무역지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2개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는 2013년 이전까지 현재의 면세대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루과이의 Colonia시와 파라과이의 Ciudad del Este 시에 자유무역항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5) 세제조율

아르헨티나는 여타의 회원국들과 재정정책이 보조를 맞추도록 추진한다는 조건 하에 2000년 까지 MERCOSUR 비회원국에 대한 수출에 대해 세금공제를 해주는 협행 조세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타의 회원국들에서도 허용한다는 조건하에 수출금융제도를 2000년 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정상회담에서는 회원국 정상 간에 합의된 무역정책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초부터 위원회를 설립 가동하기로 하였고, 또한 금년 말 까지는 내년에 출범하게 되는 MERCOSUR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기구 및 조직구조를 확정짓기로 합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4개국 정상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서명한 협정은 1991년에 MERCOSUR 출범준비에 관한 아순시온협약을 통해 추구하였던 원래의 목표에는 미달하는 것이었다. 각국이 무역 및 산업정책에 있어 표출한 많은 이견과 분쟁을 근본적으로 타결하지 못하고 절충을 함으로써 상품, 자본 및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동시장을 설립하고자 하였던 원래의 목표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었다.

역내 무역액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장거리 통신기기, 컴퓨터 및 자본재의 역외수입 관세율에 관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양국간의 이해상충은 쉽사리 조정될 수 없었다. 그러나 브라질의 거대시장에 진출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않고서는 자국의 낙후된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을 인식한 아르헨티나로서는 브라질의 강력한 요구를 어떻게라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브라질의 우월한 교섭력에 양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첨단기술제품들에 대하여는 2005년 까지 14-16%의 보호관세를 허용할 것에 동의하게 된 것이었다. 여타의 상품에 대한 관세는 0-20% 범위 내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양보의 대가로서 아르헨티나도 브라질 측으로부터 자국의 일부 제조업부문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양보를 받아 내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철강, 제지, 섬유, 설탕 및 정유업체는 보다 경쟁력이 강한 브라질 업계의 공격으로부터 당

분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4년간 이들 부문의 브라질 상품들은 MERCOSUR 역외로부터의 수입상품에 적용되는 것과 똑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Barham and Foster, 199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년 1월 1일 MERCOSUR 공동시장출범을 앞두고 4개국 정상이 합의를 본 사항은 4년전 아순시온 협약체결의 시점에 이들이 표방했던 목표에는 미흡한 것이지만, 그동안 회원국들 간의 교섭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만한 정도의 합의도 대단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간의 거시경제정책의 조율이 실패하고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 MERCOSUR형성은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으리라는 전망이 한 때 우세하였기 때문이다.

IV. MERCOSUR 회원국의 교역 및 투자환경

MERCOSUR 추진의 배경, 현황 및 기대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들의 교역 및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별 회원국별로 주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사건 및 현안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의 교역 및 투자환경 상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휘청거리는 국가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개방경제와 수출주도 성장이 첨경 임을 최근에 이르러서야 깨달은 국가였다. 메넴(Carlos Menem) 대통령이 경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91년 말이었다.

1991년 11월 1일 메넴대통령은 단한번의 펜돌림으로써 지난 50년간의 관주도 경제체제를 전격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엄청나리만치 대담한 움직임으로 메넴 대통령은 국민경제의 자율화조치를 선포하였는데, 이 “경제자율화에 관한 대통령령(Economic Deregulation Decree)”에 따라 많은 연방 규제기관이 폐지되었고, 수출세와 도로세가 인하되었고, 저렴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은 장려되었다. 대통령령은 또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에 관한 규제를 철폐하였고, 육상운송업에 관한 규제를 모두 해제하였으며, 곡물 및 육류의 시장거래를 통제하던 여러 위원회 등을 폐지하였고, 수출입 관련 규제도 대부분 폐지하였고, 항만의 24시간 개방을 명령했으며, 의약품의 수입과 판매에 관한 규제도 철회하였다.

그러나 가장 극단적인 조치는 전산업부문에 대해 기존의 노사협약을 무효화한 것이었다. 과거 50년간 이 나라가 시달렸던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은 노동조합들이 엄청난 권력을 보유하며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 촉수를 뻗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에 귀착된다. 한때 높은 수준에 달하였던 아르헨티나의 금 보유고가 고갈되고, 산업기반이 황폐화되고, 금융기관들이 퇴화되게 된 것은 노동조합들이 정계, 재계 및 관

계 등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많은 외국학자들이 지적해 왔다. 노동조합은 또한 외국인에 대하여 폐쇄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호전적인 독재자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기여하여 왔다.

이러한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새로 공표된 대통령령은 산업별로 전국노조를 통하여 임금협상을 하던 종래의 방식 대신에 직장별로 노사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노조는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서민과 노조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폐론당의 대통령이 이와 같은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리라는 것은 국내외의 정치 경제 전문가들에게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이어서 그는 50년 간의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외국의 상품 및 기업에 대하여 아르헨티나 경제를 개방하고, 아르헨티나 상품의 국제시장 재진입을 위한 일련의 무역 및 투자 관련 개혁을 계속 추진하였다.

취임즉시 메넴정부는 외국투자가들에게 본질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기본취지는 외국자본의 유치 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중상류층에 의한 400억 달러 상당의 국외 도피자분의 국내 재유입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적인 조치의 결과로 이제 외국기업의 송금도 허용되고 있다. 폐소의 달러로의 환전은 외국환은행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국내 또는 국외에 아무런 제약 없이 외화구좌를 보유할 수 있다. 투자등록은 오직 통계적 목적을 위해서만 요구된다. 외국기업의 현지 자본시장 접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조치에 힘입어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외국 투자가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산업은 석유와 가스, 식품가공, 호텔 및 레스토랑, 직물, 농산물 가공, 운행, 소매점, 그리고 도매유통센터 등이다. 현지기업들 간의 담합과 정부의 편파적인 지원이 아직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르헨티나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은 일이나 많은 외국기업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이를 시도하고 있다.

3,330만 인구의 아르헨티나는 다양한 산업기반과 총 1,250만에 달하는 양질의 노동력(물론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적 수준의 유능한 중간관리자층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인력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아르헨티나의 법인세율은 다른 라틴국가에 비하면 비교적 적절하지만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 소득세율은 20%이며, 양도소득세율은 20-36%의 범위에서 결정된다. 15.6%의 부가가치세와 여러가지 지방세도 부과된다.

1991년에 정부가 취한 긴축재정조치는 인플레를 진정시켰다. 종래에 연간 18,000%에 달하던 인플레이션이 1992년에 이르러는 25% 수준으로 진정되었는데, 이는 가히 팔복할 만한 발전이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기관 및 다국적 원조기관들도 아르헨티나의 경제 개혁 의지와 성과를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국제통화기금(IMF)은 10억 4천만 달러의 차관을 승인하였으며, 세계은행도 3억2천5백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증권시장도 활황을 보이게 되어, 외국기업들이 현지에서 직접

또는 간접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2〉 아르헨티나의 주요경제지표

	1989	1990	1991	1992
실GDP성장률(%)	-6.2	0.1	8.9	8.7
소비자물가상승률(%)	3,080	2,314	172	25
수출(fob : 백만달러)	9,573	12,354	11,978	12,235
수입(fob : 백만달러)	3,864	3,726	7,559	13,623
정상수지(백만달러)	-1,305	1,903	-2,804	-8,370
환율 ¹	423	4,895	9,549	0.99

주 : 1) 1992년 1월1일 이전은 아우스트랄, 이후는 폐소의 對미달러 환율임.

자료 : Economic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민영화 계획도 가속화되고 있다. 국영기업들의 경영을 정상궤도에 올려 놓은 후에 민간투자가들에게 매각하고자 한다면 너무도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 하에 아르헨티나는 현상태에서 매각조치를 취하는 신속한 민영화방식을 택하였다. 이에 따라 국영항공사, 철도, 전화국, 2개의 T.V방송국, 휴양지 시설, 석유 및 가스채굴권, 6천2백마일에 달하는 도로운용권, 항만시설 등 많은 사업들이 민간에게 매각되었다.

이렇게 하여 1991년에 조달된 금액 만도 85억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러한 민영화조치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으로 외채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4년 초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출금융, 수출업자의 비용감면 조치, 산업지원조치 및 수출진흥프로그램 등을 동원하여 수출증대를 적극 도모하였다. 그 결과 1994년도의 아르헨티나의 수출은 155억달러에 달하여 전년대비 15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작년의 수출증가율과 비교할 때 두배에 달하는 것이다.

무역관련 법규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제보다도 훨씬 더 자율화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상품을 세 부류로 구분하여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자국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래상품에 대해서는 22%의 관세율을, 자국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간재에 대해서는 11%, 자국상품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는 일차산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자기구와 컴퓨터수입에 적용하던 특별 보호조치를 폐지하였고, 수입면허제도 폐지하였다.

자율화 및 개방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메넴정부의 개혁조치가 진행되는 속도와 범위는 실로 놀랄만한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의 교역 및 투자환경에 대해 다소의 의구심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것을 권하고 있다(Tuller, 1993).

첫째을 강조하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아직도 강하다. 기회만 주어지면 이들이 정부

로 하여금 자유시장을 강조하는 정책으로부터 전면적으로 후퇴하도록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아직도 위기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노동조합도 완전히 세력이 약화된 것은 아니다.

둘째, 아르헨티나가 취해온 일련의 자율화 조치가 보인 성과는 매우 팔목할 만한 것 이지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스스로 규제한 것만을 자율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기업들이 겪게되는 애로의 상당부분은 국가의 규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의 관행과 담합에서 비롯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지은행들은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은행구좌 개설을 허용하며, 정부관료와 기업들 간의 뇌물수수와 그로 인한 편파적인 대우는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

셋째, 산업 카르텔은 자율화 조치 이전과 다름없이 존속하고 있다는 점이나, 현지의 대기업이 지배되는 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현지 대기업 간의 카르텔에게 번번히 패배당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수출 결제대금인 폐소의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 고율의 인플레 발생 위험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2. 브라질

1억 5천 5백만 인구의 브라질은 외국기업들에게 막대한 시장과 자원이라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거대한 도전의 상태가 되고 있다. 모든 남아메리카국가들 중에서 브라질은 가장 견실한 무역기반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장 느린 속도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향한 조치를 취해왔다. 경제개혁조치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외채문제도 아직 심각한 상태이며 인플레는 경제운용의 중대한 애로요인으로 남아있고, 정치적 리더쉽도 결여되어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면적으로는 남아메리카대륙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큰 국가인데, 몇몇 대도시지역에만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전국적인 경제개혁추진이 매우 어렵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 크게 분권화 되어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도록 되어있는 독특한 삼단계 정부구조도 국가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행정의 책임과 권한은 26개주를 대표하는 연방정부, 수도 브라질리아 특별시 및 4천3백개의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에 의해 공유된다.

이러한 점에서 브라질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중에서 분권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연방체제이다. 연방정부는 총정부지출의 50% 미만을 관리한다. 1988년에 제정된 브라질 신헌법은 조세 및 재정지출의 자율권을 대폭 주와 지방자치체에 이양하였다.

대개의 경우 연방체에서 지방자치체는 주정부 산하에 예속되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브라질에서는 주정부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독립적 행정단위로서 인정된다. 지방자치체는 특히 도시내의 공공운송과 교통, 유치원, 국민학교교육, 예방 보건, 토지의 활용, 그리고 역사, 문화적 보존에 책임을 진다.

연방과 주정부는 보건, 교육, 문화, 환경, 농업, 식품유통, 주택, 위생시설, 사회복지, 경

찰행정 및 수력발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다. 국제무역, 은행금융체계, 통화관리 등은 연방정부의 책임이다. 비록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주요 정책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수립되지만, 이를 집행하는 주정부와 지방자치체는 승인, 면허발급 및 여타의 규제조치 들을 통하여 각기 나름대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주 정부 또는 지방자치체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일은 연방정부 규제를 피하는 것에 못지 않게 번거로운 일이다. 또한 이와 같이 분권화된 행정구조 하에서는 행정적 업무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공무원의 부패 가능성도 증대하게 된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하는 국가로서 목재, 에너지, 다양한 광물, 비옥한 농토, 맑은 물 등 모든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저렴한 노동력과 유능한 관리자들도 풍부하여 브라질은 광범위한 산업기반도 갖추고 있다. 남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사회간접자본도 상당히 개발이 잘 된 편이다. 또한 내수시장도 활발화되어 있는데, 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천연자재는 국내에서 언제든지 용이하게 입수될 수 있다.

1980년 이전까지만 해도 브라질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상태에 있었다. 지금부터 70년 전 브라질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아르헨티나의 30분의 1에 머물렀으나, 1970년 경에 이르러는 아르헨티나보다 훨씬 더 풍요한 수준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브라질이 아르헨티나를 앞지를 수 있게 된 것은 폐론과 그 후임 통치자들의 잘못된 국가경영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크게 퇴보된 면도 있지만, 브라질 측의 산업기반 확충과 외국과의 교역을 중시한 경제개발노력이 주효하였기 때문이었다.

1980년까지 브라질은 40년동안을 줄곧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누려왔다. 1980년의 1인당 GDP는 2천4백50 달러였고, 경제규모 면에서는 세계 10대에 달하였는데, 그 내용도 건실하였다.

브라질은 이렇게 유리한 자원과 여건을 갖추고서도 왜 세계무역과 경제성장의 주도국이 되지 못하고 술취한 거인처럼 휘청거리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극히 비효율적인 연방정부의 운영에서 찾을 수 있다. 누가 대통령직을 맡든지간에, 브라질에서는 장기적 국민복지 보다는 권력을 장악한 정부관료들의 축재를 우선으로 하여 국가정책들이 수립 집행되어 왔던 것이다.

1989년 브라질의 총외채는 1,110억 달리를 상회하였다. 개발도상국가중 세계 2위와 3위를 차지한 멕시코의 950억 달러와 인도의 620억 달러에 비교할 때 브라질의 외채규모는 엄청난 수준이었다. 그 아래로 멕시코는 외채청산문제를 잘 처리하고 있으나, 브라질은 뒤늦게 1992년에 이르러서야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또한 인플레와 그 부작용을 통제하려던 연방정부의 정책이 실패하면서 거대한 지하경제를 낳게 되었다. 현재 브라질 지하경제의 규모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GDP의 50% 정도에 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하경제는 지방의 영세한 소작농이나 소규모 비공식금융업자들에게 제품과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건실한 중류층의 생계유지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이 브라질 경제의 특성이다.

브라질의 경제불안은 지난 5년 간에 10명의 재무장관과 10명의 중앙은행장이 교체되었고, 다섯 차례에 걸쳐 충격요법식의 경제개혁계획이 공표되었고, 네 차례의 화폐개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93년도의 1 크루제이로(cruzeiro)는 1986년의 백만 크루제이로에 해당된다. 연간 3,000-8,000%에 달하는 인플레율은 실질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1960년부터 1989년의 기간 동안에 세계의 물가는 1,100% 증가하였다. 이것은 30년 단위로 측정한 인플레율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물가상승률은 이와는 비교도 안되는 2,440만%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브라질의 인플레율은 물가 29억%에 달하였다. 대다수 국민들이 지하경제를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다른 한편으로 관료와 기업 및 노동조합은 부패와 뇌물수수 등을 통하여 더욱 부유해지는 경제풍토가 조성되었다.

석유탐사, 정유, 국내운송업, 방송 및 언론, 광업은 외국투자가에게는 아직 문호가 열려 있지 않다. 이를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들도 국내기업들과 똑같은 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1991년 중반에 브라질은 오랫동안 존속해온 장애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브라질 증권시장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 결과로서 상 파울로의 주가지수가 급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브라질의 우량기업들의 증권시장 활용도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조치가 취해지기 이전에는 외국인들은 오직 브라질인이 운용하는 기금을 통해서만 브라질의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었고, 또한 주가차익에 대하여 20%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였으며, 본국에의 과실송금을 하는 경우에 많은 제약을 받아야 했다.

지금은 외국인들도 소유지분에 제한없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주가차익에 대한 금융소득세도 면제받게 되었으나,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에는 15%의 세금을 지불해야한다. 주가차익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브라질 국민들에 비해 유리한 대우를 받게된 것이다. 그러나 초고율의 인플레가 계속되고 있고, 지하경제가 방만하며,

〈표 3〉 브라질의 주요경제지표

	1989	1990	1991	1992	1993
실GDP성장률(%)	3.3	-4.1	1.2	-0.8	4.9
소비자물가상승률(%)	1,287	2,938	441	1,009	2,148
수출(fob : 십억달러)	34.4	31.4	31.6	36.1	39.1
수입(fob : 십억달러)	18.3	20.7	21.0	20.6	25.6
경상수지(십억달러)	1.0	-3.8	-1.4	6.3	3.4
환율(크루제이로 : 달러)	2,833	68	407	4,513	101

자료 : Economic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정치적 리더쉽이 결여된 현 상황 하에서 브라질의 미래는 그리 밝지는 못하다(〈표 3〉 참조).

이런 장애요인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외국투자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 이는 ① 이용 가능한 토지의 90퍼센트 정도가 아직 미개발상태에 있어 견실한 수출지향적 농업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② 아직 개발되지 않은 광물자원의 매장량도 엄청나며, ③ 산업기반도 확충일로에 있고, ④ 거대한 수력발전시설과 알콜과 같은 대체에너지원으로부터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의 확보가 용이하고, ⑤ 높은 수준의 가처분소득을 누리는 거대한 도시인구가 있어 큰 시장을 제공하며, ⑥ 국제운송에 필요한 항만 및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도 어느정도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對브라질 교역 및 투자에 관심을 가진 외국기업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Tuller, 1993). 첫째, 对브라질 수출에 관한 한 현지변호사나 무역상사들의 협조 없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수입관세, 쿼타, 그리고 통화가치의 변동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이 높은 인플레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의 은행이 지불을 보장하는 신용장을 이용하여야 하며 거래통화도 硬貨로 지정해야만 할 것이다. 수입통관이나 국내운송에 관련된 정부의 인허가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도 현지파트너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연방법과 주법 및 지방자치체의 법이 각기 상이하여 구속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기업의 조직구조 및 기업법은 연방정부에 의해 정해지고, 무역, 원자재 조달, 토지사용, 근로자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주법과 지방자치체법에 의하여 정해진다.

셋째, 지하경제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경제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지하경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는 중요 거래선을 파악하여 접촉하기 어렵다.

넷째, 남미공동시장에의 진출교두보로서 브라질은 유망한 투자대상국이라는 점이다.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파라과이

총인구 410만에 불과한 파라과이는 92년에 5억 9,600만 달러를 수출하고, 11억 9,300만 달러를 수입했다. 동년도 GDP는 전년도에 비해 1.7% 증가했고, 연간 인플레는 17.8%로서 MERCOSUR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표 4〉 참조).

국내 소비시장과 산업시설이 회원국 중 가장 열악한 파라과이는 MERCOSUR 형성에 가장 회의적이었다. 특히 92년 10월 아르헨티나정부가 브라질과의 무역적자 감축을 위해 독단적으로 관세율을 3%에서 10%로 인상하게 되자 MERCOSUR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기업인들 사이에서 강하게 대두되었다.

3국 접경지역에서 관광객들이 파라과이로 부터 구매하는 수입액이 연간 6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95년부터 역외 공동관세율이 시행될 경우 파라과이는 외화소득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상태에 있었다.

〈표 4〉 파라과이의 주요경제지표

	1992	1993	1994 ¹
실GDP성장률(%)	1.7	3.7	4.2
소비자물가상승률(%)	17.8	20.2	30.0
수출(fob : 백만달러)	1,036	1,130	1,300
수입(fob : 백만달러)	1,527	1,680	1,800
경상수지(백만달러)	-390	-400	-300
환율(파라나 : 달러)	1,600	1,795	2,350

주 : 1) 예측치임.

자료 : Economic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이 나라는 타회원국과 달리 백인이 적고 인구의 대부분이 메스티조로 구성되어 있어 회원국 중 가장 이질적인 인종구성 형태를 보여준다.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보다는 브라질 문화에 더욱 근접해 있다는 특색이 있다.

1993년 11월 30일, 파라과이와 미국은 마약대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에 조인했다. 앞으로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양국간 금융거래는 은행의 최고경영자들이 예의 점검 할 것이다. 오랫동안 금융전문가들은 파라과이가 불법적인 마약대금의 유통기지인 것으로 간주해왔다. 작은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금융부문의 규모가 크다는 사실 자체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그들은 보았던 것이다.

14년전에 설립된 증권시장이 마침내 1993년 10월 12일 처음으로 개장되어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기업을 가족이 소유하는 전통으로 인하여 증권시장의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최근 MERCOSUR의 에너지 위원회는 브라질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동시장 내에서의 에너지 자유시장 구축을 포함하는 지침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브라질과 맷은 이타이푸(Itaipu)댐에 관한 협약의 13조와 14조는 파라과이가 자국 물의 에너지를 제3국에 판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는 양국간의 주요 쟁점으로 발전할 가능성 있다.

1993년도의 GDP 성장률은 3.7%였고, 1994년도에는 4.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간 인플레율은 1993년에 20.2%였으며 이는 1991년의 11.8%, 1992년의 17.8%에 비해 다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993년도 1월에서 9월 까지의 수출은 6억7백만달러로서, 전년 동기간에 대비하여 11% 증가하였고, 동기간에 대한 수입은 9억8,700만 달러로서 전년 동기간 대비 10% 증가하였다. 그 결과 무역적자는 3억5천만달러에서 3억8천만달러로 증가하였다. 1993년 9월 30일 현재 외채는 12억4,200만달러 인데, 이는 전년도 같은 시점의 외채규모에 비하여 14% 감소된 것이다.

4. 우루과이

2백만 인구중 약 83%가 수도인 몬테비데오 및 인근도시에 몰려있다. 남미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우루과이는 남미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법제도를 갖고 있다.

우루과이의 고기, 양털, 쌀 등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며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우루과이는 92년에 3억4천2백만 달러를 브라질에 수출했고 5억1,700만 달러를 수입했다.

우루과이는 인구의 대부분이 스페인 및 이태리계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아르헨티나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문화 및 상관습이 아르헨티나와 비슷하다. 1980년대의 재정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본거래의 자유화조치는 우루과이로 하여금 지역 금융센터로서 높은 명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었다. 1992년 12월 현재, 민간은행 수신고의 90% 정도가 외국통화(주로 미국달러) 표시 예금인데, 이의 60% 정도는 비거주자의 예금과 역외 사업관련 예금이었다. 우루과이는 또한 년간 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이 지역의 중요한 관광센터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많은 수의 아르헨티나인들이 그들의 주거지(예를 들면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같은 도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는 해변의 휴양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우루과이를 방문한다. 1992년에는 대략 140만명의 관광객이 이 지역을 방문하여 3억5,900만 달러의 외화를 소비하였다. 전통적 수출산업인 양털과 육류를 능가하는 관광수입은 중요한 외화소득원이 되고 있다.

제조업은 우루과이 경제의 또하나의 중요한 부문으로서 1992년의 경우 GDP의 24% 정도를 차지하였다. 가장 중요한 제조업부문은 식품과 섬유로서 이들은 또한 주요 수출산업이다. 식품류는 36%가, 섬유는 41% 정도가 수출되고 있다.

우루과이는 1987-1990년의 기간에 상품수출과 관광수입증대에 힘입어 국제수지면에서 흑자를 누렸다. 그러나 1991년에는 무역수지 악화와 대외부채 재조정으로 인하여 2억3천7백만 달러의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1985년 이래 최초의 국제수지 적자이었다. 1992년에는 대규모 해외자본의 유입에 힘입어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다.

1993년 초에 정부가 목표로 세운 인플레이션율은 30-35%였으나, 1993년 말의 연간 인플레이율은 53%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1994년도에 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는 30%이다(<표 5> 참조).

경제규모가 외소한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에게 MERCOSUR는 2억 인구의 거대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우루과이는 무역 및 금융산업에서의 비교우위를 통하여 MERCOSUR 공동시장의 이점을 활용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루과이 정부는 MERCOSUR 체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리스트락츄어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은 별도의 여신한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루과이에서 조립된 자동차들의 대브라질 수출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년간 3만 대의 자동

〈표 5〉 우루과이의 주요경제지표

	1992	1993	1994 ¹
실GDP성장률(%)	7.4	1.5	1.5
소비자물가상승률(%)	58.9	53.0	40.0
수출(fob : 백만달러)	1,703	1,600	1,750
수입(cif : 백만달러)	2,058	2,250	2,400
경상수지(백만달러)	-207	-300	-400
환율(페소 : 달러)	3.48	4.45	5.64

주 : 1) 예측치임.

자료 : Economic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차를 수출하기 위한 협상이 브라질과 진행되고 있다.

우루과이의 무역은 인접국가들에 크게 치우쳐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의 주요 교역상대국으로서 1992년의 경우 수출의 35.5%, 수입의 42.7%를 차지하였다. 1991년과 1992년의 경우 브라질에 대한 우루과이의 수출의 브라질경제의 정체 현상으로 인하여 감소하였으나,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출은 이 나라의 급속한 경제회복으로 인하여 대폭 증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시장이 우루과이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도 5%에 불과하던 것이 1992년에는 19.7%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우루과이에게 가장 중요한 해외시장이 브라질로 부터 아르헨티나로 바뀌게 되었다.

〈표 6〉 한·아르헨티나 교역현황

(단위 : US\$천)

년 도	수 출	수 입	수 지
1986	86,745	36,054	50,691
1990	75,264	86,290	- 11,026
1991	225,535	108,178	147,357
1992	463,288	115,707	347,581
1993	534,980	66,568	468,412
93(1-6월)	227,309	21,232	206,077
94(1-6월)	241,202	25,792	215,410

자료 : 상공부 수출입통계

5. MERCOSUR와 한국

지난해 한국은 MERCOSUR의 두 주역국가와의 무역에 있어서, 브라질에 대해 수출 4억4,853만달러, 수입 7억7,933만달러로서 3억3,081만달러의 무역수지적자를 보였다. 아르헨티나와의 교역은 수출 5억3,498만달러, 수입 6,657만달러로서 4억6,841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수출은 1991년에 전년대비 199.7% 증가하였으며, 1992년에는 105.4%가 증가하는 급증세를 보였고, 1993년에 들어서는 그 증가세가 크게 완화되어 증가율이 15.5%에 머물렀으며, 1994년 상반기의 수출도 전년 동기간대비 6.1% 증가에 그치고 있다(〈표 6〉 참조). 대브라질 수출은 1991년에 전년대비 64.1%의 증가를 보였으나, 1992년에 5.6% 감소하였고, 1993년에는 172.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전년동기간 대비 64.3%의 증가율을 보였다(〈표 7〉 참조).

〈표 7〉 한·브라질 교역현황

(단위 : US\$천)

년 도	수 출	수 입	수 지
86	17,266	141,704	-124,438
90	106,171	706,719	-600,548
91	174,227	889,084	-714,857
92	164,465	796,881	-632,416
93	448,526	779,334	-330,808
93(1-6월)	170,019	372,548	-202,529
94(1-6월)	279,419	406,658	-127,239

자료 : 상공부 수출입통계

브라질로 부터의 수입추이를 보면, 1991년에 전년대비 25.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992년에는 10.4%의 감소율을, 1993년에는 2.2%의 감소율을 보여 최근 2년간 연속 감소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금년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9.2%의 증가율을 보여 이대로 나가면 브라질로 부터의 수입규모가 1991년의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로 부터의 수입은 1991년에 전년대비 25.4% 증가, 1992년에 7.0% 증가하였으나, 1993년에는 42.5%의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그러나 금년상반기의 수입은 전년동기간대비 21.5%의 증가율을 보여 다소의 만회추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볼때 이들 MERCOSUR 주역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한국의 전체 교역규모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최근에 이르러 급신장세를 보여왔고 아직도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점이 주목된다. 메르코수르 회원국들 간에 일고 있는 변화와 이들이 한국의 수출시장 및 투자대상국가로서의 잠재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파라과이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1991년도 5,552만달러, 1992년도 4,821만달러였

고, 우루과이에 대한 수출은 1991년도 3,214만 달러, 1992년도 3,775만 달러였다.

교역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의 주종상품은 전자부품, 컴퓨터주변기기, 직물 및 자동차이며, 주요수입상품은 철광등 광산물, 철강금속제품, 과일쥬스 및 대두 등이다. 대아르헨티나 수출에 있어서는 전자부품, VTR 및 칼라TV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직물류 및 자동차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로 부터의 수입은 오징어, 동물사료 및 가죽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아르헨티나에 비하여 시장규모가 훨씬 큰 브라질이 아르헨티나 보다 한국상품을 적게 수입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아르헨티나에 비하여 시장개방의 정도가 낮은 점에도 기인하지만 또한 브라질과 한국은 수출산업구조 면에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MERCOSUR역내시장에 대한 한국과 회원국들간의 수출상품구조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수출품목과 각 회원국의 역내 수출품목이 얼마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가 알아보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각 회원국별로 30대對MERCOSUR 수출품목을 파악하여 이를 30대품목이 차지하는 수출비중과 이를 중에 한국상품과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이 몇이나 되는가를 조사함으로써 경쟁의 강도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한국과 MERCOSUR 회원국 간의 역내수출경쟁관계

	30대 품목의 대MERCOSUR 수출 비중	30대 품목 중 한국상품과의 경쟁품목수	경쟁품목의 대MERCOSUR 한국수출비중
아르헨티나	50.40%	8개	5.98%
브라질	32.17%	18개	25.78%
파라과이	94.73%	3개	0.13%
우루과이	53.70%	6개	0.53%

<표 8>의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브라질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수출 중에서 3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50.40%이다. 이 30대 품목 중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다소라도 발생하고 있는 품목은 8개 품목이며, 나머지 22개 품목에 있어서는 한국의 수출이 전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대MERCOSUR시장 주요 수출상품 중에서 한국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은 8품목 뿐인데, 이를 8개 품목이 MERCOSUR의 여타 3개국 시장에 대한 한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8%이다.

같은 방식의 해석을 브라질에 적용하면, 브라질의 대MERCOSUR수출에 있어서 3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32.17%이다. 이는 수출상품의 다양화가 아르헨티나 보다 브라

질에서 더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를 30대 수출품목 중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시장에서 브라질이 한국상품과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은 18개인데, 남미 3개국에 대한 한국의 총수출에서 이를 18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5.78%에 달한다. 30대 수출품목 중 아르헨티나와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이 한국의 수출 중에서 차지한 비중이 5.98%인 점과 비교할 때, 브라질과의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이 한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큰 편이다. 동일한 분석을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에 적용해 볼 때 MERCOSUR 시장에서 이를 국가와 한국과의 경쟁관계는 그리 심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분석을 통해서도 현재 한국과 브라질은 MERCOSUR 시장에 대한 수출에 있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MERCOSUR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는 아르헨티나에 27건 3,627만달러, 브라질에 4건 224만 달러, 파라과이에 1건 169만 달러, 우루과이에 2건 45만 달러가 실시되어, 아르헨티나에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아르헨티나는 광업 2건, 제조업 2건, 수산업 23건으로서 수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루과이도 수산업과 수산가공업에 각 1건 씩, 파라과이에는 자켓과 바지제조에 1건이, 브라질에는 석유화학 1건, 음식숙박업에 1건, 조립금속(콘텐서)에 1건, 완구에 1건이 투자되어 있어 MERCOSUR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투자종도 극히 단순함을 알 수 있다.

한국과 MERCOSUR 국가들 간의 통상현안으로서, 아르헨티나는 92년 8월에 한국산 칼라TV의 반덤핑조사에 착수하였고, 이어서 같은 해 9월에는 한국산 카스테레오에 대해서도 반덤핑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현재 이들 조사는 잠정중단된 상태에서 그 결과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의 직물업체들이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자국산업의 위기를 이유로 최근에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산 직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촉구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MERCOSUR추진일정에 의거 브라질의 직물류 수입관세가 20%에서 15%로 인하됨에 따라 한국산 직물의 대브라질 수출이 급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브라질의 직물협회는 한국기업들이 직물을 수출하면서 불공정경쟁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대하여 수입쿼터제도나 반덤핑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원에서도 수입개방으로 인한 브라질 직물업체의 피해상황과 구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미국가들의 개방경제체제도입 및 한국과의 교역증대와 더불어 한국과 이 지역국가들과의 통상마찰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지 동향 및 정보수집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되고 있다.

V. MERCOSUR 공동시장 형성의 효과와 영향

1. 거시경제적 효과

경제통합은 통합의 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① 자유무역협정 ②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④ 경제동맹 ⑤ 정치적 완전 통합으로 나누어진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가맹국 간의 모든 무역제한 조치는 철폐되나 가맹국은 제3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관세를 포함하는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관세동맹을 체결할 경우 가맹국은 자유무역협정 하에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동맹이 결정하는 공통의 통상정책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추가된다. 공동시장이 창설될 경우 가맹국은 이상의 의무에 덧붙여 가맹국에 노동 및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경제동맹이 체결될 경우 가맹국은 이상의 의무 뿐만 아니라 금융 및 재정정책에 있어서 상호간에 통일적인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게 된다. 끝으로 정치적 통합의 경우 가맹국들은 단일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경제통합의 수준이 자유무역지역의 창설이나 관세동맹의 수준에 머무를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서는 ① 비교우위에 따른 전문화의 확대로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②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됨으로써 생산의 규모가 확대되고, ③ 경제권의 확대에 따라 국제적인 협상에 있어서 협상능력이 높아질 수 있고, ④ 역내 가맹국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제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⑤ 경쟁의 제고는 기술진보를 촉진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요소의 질적 양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MERCOSUR는 원래 공동시장을 지향하고 추진되었으나,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월 5일 4개국정상들이 어렵게 절충점에 도달한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아직 관세동맹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MERCOSUR형성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상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경제통합의 수준이 공동시장이나 경제동맹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상에서 열거한 효과에 추가하여 ⑥ 생산요소가 가맹국간에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요소의 최적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⑦ 가맹국 간에 금융 및 재정정책의 조화가 달성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이 일층 더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한다(El-Agraa, 1989).

이와 같은 효과에 추가하여 고려되어야 할 MERCOSUR형성의 효과로서는, 자유무역 협정이나 관세동맹을 창설할 경우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가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무역창출 효과란 이러한 경제통합이 일어날 경우 가맹국이 이제까지 서로 간에 부과하여 오던 무역제한조치를 철폐 또는 완화함으로써 가맹국의 무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말한다.

무역전환 효과란 MERCOSUR 회원국들이 공동시장을 형성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역외국가들로 부터의 수입이 역내국가들 간의 교역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말한다. 한편으

로는 MERCOSUR 역내기업들에게 유리한 제품 및 기술표준, 관세 및 현지조달비율의 강화 등을 통한 역외기업에 대한 차등대우로 인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역내시장완성의 결과로 유발될 역내기업들의 생산성 및 경영효율 향상에 기인하여 이러한 무역전환효과는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무역전환효과 또한 역내시장규모의 확대에 기여하는 한 요인이 된다.

2. MERCOSUR형성의 국제적 의미

MERCOSUR 공동시장의 형성은 회원국에게 새로운 국제적 안목과 시야를 확대해주는 효과도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남미의 비회원국들에게도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남미국가들이 MERCOSUR 결성을 통하여 북미 자유무역 연합, 유럽 공동시장, 그리고 남미의 여타 국가들과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이 지역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축이 되어 추진된 NAFTA결성은 세계경제의 블럭화추세에 대한 자기방어적 조치였다. 그러나 NAFTA 협정은 미국시장에서의 남미산 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남미국가들의 대미 수출품목들은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남미국가들에 대해 미국시장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 파급효과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지난 1990년 7월 부시 미대통령은 교역, 투자, 외채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자 미주통합에 관한 조치(the Initiative for Americas)를 선포하였다. 북미와 남미 두 대륙에 연계하여 자유무역지대 결성을 시도하고, 이 지역시장에 자본유입과 국제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외채부담을 감소시킨다는 구체적 계획이었다. 미국 측의 이러한 조치는 한편으로는 세계적 경제블럭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적 대응결과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남미 지역경제에 새로운 기대와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간의 의존적 관계는 각 나라의 경제발전수준과 교역패턴에 따라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1992년도 멕시코의 미국시장 의존도는 총수출액의 67%에 달하는 반면, 파라과이는 8%, 우루과이는 9%에 지나지 않으며, 베네주엘라, 칠레,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이보다 더욱 낮은 수출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80년대에 들어 남미국가들의 미국시장수출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표 9〉 참조),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비중은 70년대에 비해 오히려 다소 감소하였다. 또한 남미국가들의 미국시장점유율도 1970년 10.1%, 1980년 11.1%, 1989년 10.8%로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미와 남미간에 연계하여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해소됨으로써 남미상품의 북미시장 진출의 기회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폐루, 칠레,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베네

〈표 9〉 남미의 미국시장 의존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1970	28.4%	41.4%
1980	29.1%	36.8%
1988	35.2%	38.1%

자료 : Bank of Industrial Development, Brazil.

주엘라, 에콰도르는 이미 기본 협정을 초안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으며, MERCOSUR 회원국들의 경우 역내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는대로 NAFTA와의 연계를 추진할 방침으로 있다.

그러나 높은 인플레이와 정치적 불안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브라질이 NAFTA 회원국으로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무하고, 경제안정의 기조를 쓰아가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도 아직 불확실한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서 MERCOSUR 가 가까운 시일 내에 NAFTA와 직접 연계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다소 느리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로 개방경제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고 역내 경제의 활성화를 달성하게 된다면, 또한 나아가 칠레와 볼리비아를 위시한 주변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MERCOSUR의 영역이 확대 된다면 NAFTA에 대한 협상력이 크게 신장될 것이고, 두 대륙 간에 연계된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미와 유럽공동시장의 관계도 북미와의 통상 및 교역관계에서 나타난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 남미경제에 미치는 유럽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추이를 보여왔었으며, 특히 80년대에는 유럽 경제의 침체와 남미의 외채문제 및 경제악화로 인하여 양대륙 간의 통상 및 무역관계는 저조하였다. 그 결과 지난 70년대 남미지역에서 수출시장의 유럽공동시장 지역에 대한 의존도는 평균 28% 수준이었으나, 80년대 중반에는 불과 19%수준으로 크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유럽공동시장의 결성은 관계개선에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고 있고, 남미국가들의 수출신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공동시장 역내국가들이 보유하는 비교우위와 역내국가들 간의 보완적 관계 때문에 인하여 남미 상품의 수출이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MERCOSUR 회원국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 민영화, 개방화 현상은 외부와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를 증진시킴으로써 EU 지역과의 교역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MERCOSUR 회원국들의 유럽공동시장과의 경제적교류를 현재의 정치적 관계 수준으로 높이며, 각 회원국들의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여 유럽공동시장과의 모든 협상에서 공동전략을 추진하도록 하며, 기술 및 금융 면에서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출신장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유럽공동시장의 요구수준에 합당한 품질기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3.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세동맹 및 공동시장의 형성은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되는 제반 효과 이외에 주요 경제단위인 기업의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경쟁환경여건에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MERCOSUR 형성이 시장규모확대, 상품 및 부품의 표준화, 산업구조의 재편, 직접투자 및 전략적 제휴의 증가 측면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쟁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시장규모확대

MERCOSUR는 1995년 1월에 본격 출범하도록 되어 있어 아직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아순시온 협약 아래로 많은 이견과 잡음을 발생시켜온 가운데 이들 회원국들은 공동시장형성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여 왔고 그 결과 회원국 간의 교역은 크게 증가하였다.

1993년 한 해 동안 MERCOSUR의 역내 교역은 전년에 비해 삼분의 일 정도 증가하여 81억5,0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의 최대 수출국이며,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제이의 수출시장이고, 석유공급원이다. 아르헨티나의 브라질에 대한 수출이 최근 급증하면서 무역수지 상의 적자 폭이 대폭 감소되는 가운데 양국간의 무역수지도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역내교역의 급증현상은 역내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규모의 대폭 확대를 뜻한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교역이 급증한 것은 양국의 경제가 서로 보완적인 측면도 많이 보유하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에너지 생산량이 풍부하지만 브라질은 그렇지 못하다. 1993년도 아르헨티나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브라질에 두번째로 많은 석유를 공급하는 나라였다. 브라질 전력생산의 대부분은 수력발전인데 비하여 아르헨티나는 대형 화력발전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곡물생산량이 자체수요를 크게 능가하지만, 브라질은 식품수입국이다. 아르헨티나의 산업설비는 이미 낡아 한물 간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보다 웨씬 큰 브라질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브라질의 산업은 아르헨티나에 비해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기존의 브라질 소비자 1억5천만에 3천3백만 아르헨티나의 소비자를 추가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은 매력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관광산업 또한 번창하고 있다. 금년 여름을 브라질에서 보낼 아르헨티나의 관광객수는 대략 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역내 관광시장의 규모가 크게 팽창하고 있음을 가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MERCOSUR 공동시장의 출범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공동시장형성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조희문, 1993:184-185). 공동시장의 규모에 관한 수치를 보면 역내 인구 1억8천6백만, 총면적 1천2백만 평방킬로로서 상당히 큰 규모이지만, 고르지 못한 도

시발달 상황 및 교통과 통신 등의 인프라스트럭처에 관한 여건을 감안하면 실제로 초기단계에서는 역내 인구 전원과 역내 지역 전부가 MERCOSUR 공동시장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지는 못할 것이다. 공동시장의 혜택을 받게 될 면적과 인구는 상당히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개념의 MERCOSUR는 우선적으로 4개국의 접경지역과 소비시장이 집중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향후 발전단계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는 경제권이 집중된 중동부지역(뽀르투알레그리, 벨로리존씨, 리우데자네이로를 연결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MERCOSUR의 영향권에 속하고, 아르헨티나는 코르도바, 멘도사, 네우켄, 바히아블랑카를 잇는 경제권이 수혜지역에 속한다. MERCOSUR의 중간에 속하는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의 모든 영토를 포함시키기로 하면, 실질개념의 MERCOSUR는 인구 1억명 가량에 일인당 국민소득 약 4천6백 달러, 총 GDP 약 4천6백억 달러의 규모가 된다.

2) 상품 및 부품의 표준화

MERCOSUR 공동시장형성으로 예견될 수 있는 주요 현상의 하나는 생산, 판매, 유통, 광고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종전에 비하여 국가별로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제품을 표준화하여 공급하는 경향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회원국 간에 자유로운 상품이동이 가능하게 되고, 기술 및 제품표준의 공동설정이 추진됨에 따라 종래에는 개별국가 중심으로 경영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공동시장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간주하며 경영전략을 펼치는 기업들이 날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표준화된 제품의 생산규모를 증대시켜 생산공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제품의 깊이(depth)가 감소하게 될 것이며, 판매예측의 정확도도 증대될 것이고, 이러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원가절감의 효과는 가격인하를 통해 고객에게 이전되거나 시장개발 및 연구개발활동 등에 재투자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각 국가별 고객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발되는 비표준화제품들도 경쟁적 위상을 유지할 여지는 있으나, 이들 제품과 MERCOSUR 전역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제품들 간의 가격차이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부분적으로 이미 기업들의 행태에 반영되고 있다. Volkswagen과 Ford의 합작회사인 Autolatina는 종전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각기 개별시장으로 취급하였으나 이제는 양국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고 모든 부품과 제품을 표준화하기로 하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회사는 아르헨티나의 코르도바(Cordoba)에 소재하는 신설공장에서 생산하는 트랜스ミ션을 이 회사가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중형차들에 장착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식품회사들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브라질의 최대 식품회사의 하나인 Sadia는 아르헨티나의 한 회사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자사상품의 유통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제 이 회사에게 아르헨티나는 종전과 같이 세상의 수 많은 해외시장 중의 하나가 아닌 최대 관심시장으로 부각되었다. 이 회사는 리오데자네

이로로 부터, 상 파울로, 남부 브라질,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거쳐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이르는 남미의 GDP의 65%를 생산하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이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이고, 아르헨티나 기업과의 합작은 그 일환인 것이다.

역내 국가들 간의 교역의 증대와 관광 등을 통한 접촉의 증대는 이 지역 소비자들의 소비행태의 모방과 동일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또한 기업 층이 상품 및 부품의 표준화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브라질에 여행을 한 아르헨티나인들은 브라질의 소비행태를 모방하여 본국에 전파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브라질산 맥주를 즐기는 버릇 같은 것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산 맥주 수요가 증가추이를 보이게 되자, 브라질의 최대 맥주회사인 Brahma는 향후 2년 간에 아르헨티나 시장의 3-4%를 점유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작년(1993년)부터 남부 브라질의 공장으로부터 부에노스 아이레스 까지 일천 마일을 넘는 거리를 트럭으로 병맥주를 운송해오고 있다. 이제 이 회사는 아예 부에노스 아이레스 인근에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Barham and Foster, 1994).

3) 산업구조의 재편

역내 산업구조에 대한 MERCOSUR 자체의 효과 만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오랜기간 수입대체 정책을 추구하며 국내시장 위주의 폐쇄적 경제정책을 추진해오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대외지향적인 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MERCOSUR 공동시장이 출범하게 된것이며, MERCOSUR 없이도 이를 국가들의 교역은 증대될 것이고, 산업구조의 재편이 진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MERCOSUR 공동시장의 형성은 이러한 현상들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공동시장의 형성과 더불어 상품, 노동 및 자본의 국가간 이전이 자유로워지고, 상품 특성 및 소비특성이 표준화 됨에 따라서, 기업들이 추구하는 전략적 시장단위의 규모가 증대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기업의 생산 및 영업단위도 확대될 것이다.

생산 및 영업단위의 확대현상은 이미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향후 더욱 가속화되리라 전망된다. 생산 및 영업단위의 확대는 두 가지 차원의 통합에 의해서 진행된다. 첫째는 개별 기업들 내에서 제조부문 및 유통부문 간에 현재 보다 큰 규모를 갖춤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에서 기업내부적으로 각 부서간 또는 생산단위 간에 추진되는 통합이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많은 기업들이 보유 운영하게 되는 생산 및 유통시설은 종전에 비하여 그 수는 감소되는 반면에 그 규모는 증대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국경에서의 통관절차에 현재 소요되는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고 있고, 철로표준의 차이 및 트럭운송에 관한 규제로 인하여 국경을 넘을 때에 현지의 운송수단으로 바꾸어 적재하고 운송해야하는 많은 번거로움과 비능률이 존재하고 있는데, MERCOSUR의 출범과 더불어 이러한 점들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역내 국가간의 운송 효율이 제고되고,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에 관하여 어느정도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

게 되면, 유통비용의 절감과 물류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며, 그 결과 물류 및 유통부문의 관리도 종전에는 개별시장 단위로 이루어지던 것이 공동시장 단위로 집행될 것이다.

둘째는 경제통합의 결과로 시장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기업들 간에 합병 및 매수를 통해 생산의 효율성 및 시장 장악력의 제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 집중화 현상이 진전될 것이다. 브라질 경제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아직 이러한 움직임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MERCOSUR의 정착은 기업들 간의 합병과 매수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시장통합 조치의 산업별 영향을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그 영향의 크고 작음을 예측하는데는 몇 가지 지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산업들에서 공동시장 형성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① 규모의 경제효과가 현저한 산업, ② 잉여생산설비의 비중이 높은 산업, ③ 대규모의 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한 산업, ④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의 한계효과가 체증적으로 나타나는 산업, ⑤ 역외 국가로부터의 경쟁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산업, ⑥ 현재 회원국 간에 높은 무역장벽이 구축되어 있는 산업, ⑦ 회원국 간에 가격차이가 큰 산업, ⑧ MERCOSUR 기술표준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산업, ⑨ 변화의 필요성이 인지되어 온 산업 등은 공동시장형성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① 경쟁의 범위가 이미 범세계적인 산업, ② 회원국별로 소비자의 취향이 큰 차이를 보이는 산업, ③ 협준 무역장벽에 의하여 제약받는 바가 별로 없는 산업, ④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문이어서 무역장벽의 철폐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문(예를 들면 의약품산업), ⑤ 시장통합조치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국가별로 보호되는 산업 등에 있어서는 시장통합의 영향이 그리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Quelch, Buzzell and Salama, 1992).

4) 역외기업에 의한 직접투자 및 전략적 제휴의 증가

1993년도 1월에서 9월까지 외국인에 의한 **對브라질 투자**는 51억7,000만 달러였다. 이는 1992년 한 해 동안의 외국인 투자가 17억달러였던 것에 비교하면 대단히 급증한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도 외채문제가 개선되고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아지면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MERCOSUR 공동시장 형성의 전망이 또한 일조를 하였다. 외국인에 의한 **對아르헨티나 순투자**는 1987년도 만해도 대외투자가 대내투자를 능가하였으나, 1991년도 24억3,900만 달러, 1992년도 41억7,900만 달러에 달하여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EIU on Brazil, 1994). MERCOSUR 회원국들이 현재의 개방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정책을 지속하며 공동시장 형성을 위한 단계적 조치들을 계속해서 취해나간다면, MERCOSUR 역내시장이 제공하는 매력에 이끌려 시장확보, 생산효율화보 및 자원확보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미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요 외국기업들로서는 미국계의 Alcoa, Dow Chemical, Exxon, Texaco, Occidental Petroleum, Firestone, Goodyear, Honeywell 등이, 독일계의

Daimler Benz, Siemens, Hoechst, Gutehoffnung 등이], 영국의 Royal Dutch-Shell, BAT Industries 등이, 일본의 Honda, Toyota, Fuji Electric, Komatsu, Hitachi 등이 있다.

VI. MERCOSUR 활성화의 선결과제

이제 보다 광범위한 공동시장 형성을 위한 기초는 마련되었다. 그러나 MERCOSUR가 출범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세부사항이 검토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회원국들간의 많은 이견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보와 타협을 도출해낼 수 있었던 긍정적인 사태전개와 각 회원국 정상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MERCOSUR의 장래는 아직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MERCOSUR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으로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만성화된 인플레의 진정 없이는 MERCOSUR도 과거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 시도하였던 경제통합의 한 실패사례로서 기록될 것이다. 인플레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효율적 경제운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회원국들 간의 경제정책 조율도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인플레는 70년대 중반부터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182.3%를 기록한 1975년에서 343.0%에 달한 1988년까지 1986년(90.1%) 한 해를 제외하고 세 자리 숫자로 표시된 최악의 인플레 현상을 겪었다. 그 결과 1989년과 1990년 사이에는 각각 3,099.3%와 1,832.5%로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율을 보였다. 그러나 메넴정권의 개혁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여 1992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율이 25%의 수준으로 진정되어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1980년(110.2%)부터 1987년(415.8%)까지 세 자리 숫자의 인플레이션율을 보였으며, 1986년의 크루자도 계획(Plano Cruzado)의 제시로 적극적 인플레 관리가 이루어지는 듯하였으나, 1988년(1,037.6%)부터 1990년(1,476.6%) 까지 네 자리 숫자의 인플레이션율로 악화되었으며, 1991년 이후 부터는 세자리 숫자의 인플레이션율로 약간의 진정 기미를 보이게 되었다. 그러면 중 통화공급량을 외환보유고와 연동시키는 금년 7월 1일의 경제조치에 힘입어 8월의 인플레이션율이 2% 이하로 떨어져 브라질도 이제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을 어느정도 보이게 되었지만,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우루과이는 1990년에 129.8%로 높은 세 자리 인플레이션율을 보였으나, 지난 1970년부터 89년 사이의 인플레이션율은 17.0%에서 97.0%로 평균 57.1%의 인플레이션율을 보여왔다. 파라과이는 4개 MERCOSUR 회원국 중에서 비교적 가장 물가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지난 20년간 연평균 16.6%의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1990년(42.7%)부터 악화 일로에 있다. MERCOSUR 회원국들의 그간의 평균인플레이션율을 비교해 보면 <표 10>과 같다. 둘째로, MERCOSUR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회원국들 간에 환율의 조정과 관리가 합리적이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난 1982년부터 가시화된 외채문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매우 심각한 양상을 띠게되

〈표 10〉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인플레율 비교

년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1970	17.0	13.6	17.0	-0.7
1975	29.4	182.3	81.4	6.8
1980	110.2	100.8	63.5	22.5
1985	235.1	672.1	77.2	25.4
1990	1,476.6	1,832.5	129.8	42.7

자료 : IMF.

면서 환율정책은 단순한 외환관리 정책으로 전락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같이 경제력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 나라의 경우 국내산업의 보호와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보호라는 기치 하에 현실적 상황을 무시하며 적용된 환율정책은 오히려 산업의 생산성과 투자의 효율성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으며, 결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치민주화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환율정책에서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다.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수립된 민주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역량에 대하여 국민들은 의구심과 불안의 시선을 보내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이 곧 신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이용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제논리와는 관계없이 국내정치적 상황에 따라 환율이 관리되어 이 지역 경제의 난맥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서 작용하였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환율 안정화 정책은 중기적으로 미달러화에 연계시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 또한 시장현실을 무시한 환율관리정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경제기반이 취약하므로 국제수지 악화현상이 재등장하여 안정세를 뒤집을 가능성은 상존한다. 브라질의 경우 외환의 철저한 관리정책으로 국제 금융계와 약속한 외채관련 협약을 엄수하며 환율을 점진적으로 안정시키는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금년 7월 새로운 환율 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환율정책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의 성과를 점치기는 아직 이르다.

MERCOSUR의 두 주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현재 양국 간 환율정책의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로 상이한 환율관리에 관한 정책의 조정방안으로서 유럽공동시장의 EMU(European Monetary System) 형태의 구조를 취하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든 회원국들 간에 합리적인 환율정책의 정착 없이 MERCOSUR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회원국 내의 정치적 불안정 또한 MERCOSUR의 성공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각각 금년과 명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 결과는 현재 모두 불투명하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들이 MERCOSUR에 대한 지지를 심각

할 정도로 변경할 가능성은 적지만 약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면, MERCOSUR 관련 정책들은 더 긴급한 목표의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상존한다. 원래의 아순시온협약에서 지향하던 목표를 달성하고 주변국가들을 포함하는 광역시장을 형성하려는 MERCOSUR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치력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 하여줄 민주화의 정착과 강한 정치적 리더쉽의 확보는 또 하나의 선결요건이다.

넷째로, 공동시장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각 회원국들의 생산구조의 문제이다. 특히 농산물 생산구조를 보면 회원국간에 보완적 관계가 없으며 경쟁적 관계 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갈등과 마찰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MERCOSUR 역내 농업정책의 일원화는 농산물시장 통합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최저가 결정책, 정부의 재고유지정책, 금융특혜 등의 방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공동시장이 완성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수단의 철폐는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쉽게 합의 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를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브라질의 경우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비하여 아르헨티나는 단지 소규모 농가의 경우 특별지원금과 소수 농축산품목의 최저가격 유지정책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며, 우루과이와 페루과이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농축산물 수출국이면서도 브라질과 비교해 볼 때 정책적 지원과 보호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주변국들에 비해 브라질은 다양한 대규모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1억5,000만 인구에 대한 농산물수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수확량의 불안정과 국제 곡물가격의 빈번한 변동은 국내 물가안정에 커다란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MERCOSUR 형성에 따른 최저가격 유지정책의 철폐는 생산과 국내 소비수준에 대해 예측불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다른 회원국은 브라질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보장할 수 없어 불공평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여야 되는 문제가 있다.

다른 여타 산업분야에서는 브라질이 MERCOSUR 회원국들과 비교해 월등한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실질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거시경제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몇몇 산업분야는 기술과 품질면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많은 분야가 정부의 지원과 보호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공동시장 형성 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VII. 결 론

현재 남미의 대국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MERCOSUR 공동시장은 회원국들 간에 많은 갈등과 마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아순시온협약에 명시된 MERCOSUR 공동시장의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침예한 대립 속에서도 회원국들 간에 절충과 타협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MERCOSUR 출범을 5개월 남짓 앞둔 금년 8월 초에 회원국 정상들이

MERCOSUR 형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각 회원국들이 MERCOSUR에 대해 부여하는 비중과 기대가 막중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더우기 안데안협약의 회원국들인 칠레와 볼리비아가 준회원국의 자격으로서 MERCOSUR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향후 MERCOSUR과 안데안협약국의 통합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MERCOSUR의 잠재력을 더 한층 증대시켜 주었다. 아직은 그 가능성이 불투명하지만, 브라질이 희망하는대로 MERCOSUR과 안데안협약국들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어 범남미자유무역지역이 형성되면, 국제사회에서 브라질은 세계의 열강대열에 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MERCOSUR가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다. 현재로서 북미와 남미를 연계하는 민주자유무역지대에 관한 구상이 NAFTA와 MERCOSUR 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로 MERCOSUR 역내에서 민주화 개방화 민영화가 지속 확대되고 경제적 안정기반이 구축된다면, 또한 나아가 칠레와 볼리비아를 위시한 주변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MERCOSUR의 영역이 확대 된다면 NAFTA에 대한 협상력도 크게 신장될 것이다.

MERCOSUR의 형성은 회원국 내부의 민주화, 민영화, 개방화가 진전되는 추세와 더불어 유럽연합과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MERCOSUR 회원국들은 유럽연합과의 경제적 교류를 현재의 정치적 관계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며, 각 회원국들의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여 유럽공동시장과의 모든 협상에서 공동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고, 기술 및 금융 면에서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출신장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유럽공동시장의 요구수준에 합당한 품질기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있다.

MERCOSUR 공동시장이 완성되기 까지에는 만성적 인플레, 회원국간 환율조정체제 결여, 정치적 불확실성, 경쟁적 생산구조 등 극복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어 아직 그 효과와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MERCOSUR가 남미지역에서 추진되어온 과거의 경제통합 조치들을 시금석으로 삼아 실리추구적인 접근방법을 신중하게 취해옴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중요한 경제블럭으로서 부상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MERCOSUR 회원국들과의 교역 및 투자가 미미한 수준에 있는 우리로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향후의 진전상황을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우택

1991 “브라질 경제 : 정부의 실패인가? 시장의 실패인가?”, 『이베로아메리카연구』(서울대학교 스페인중남미연구소) 2:77-96.

김현창 · 정진영

1991 “브라질의 권력구조와 정치과정의 특성,” 『이베로아메리카연구』(서울대학교 스

- 페인중남미연구소) 2:3-2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4 『지역경제』 각호.
- 대한무역진흥공사
1991 『중남미 투자 가이드 III』, 무공자료 91-51.
1993 『중남미 각국의 수입관리제도』, 무공자료 93-38.
1993 『중남미 진출기업운영실태』, 무공자료 93-52.
- 대한상공회의소
1991 『세계의 상관습 : 해외상담의 길잡이』.
- 박영호
1993 『브라질의 자원개발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 박태하 · 박윤재 · 김대근 · 윤현덕
1991 『한국기업의 유럽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는
문집(사회과학편 제21집), 35-110.
- 삼성경제연구소
1994 『삼성세계경제』, 1월호 : 74-76.
- 서동혁
1991 『한 · 중남미간 경제협력증진방안』, 산업연구원.
- 이성형
1991 “브라질 노동운동과 좌파정당,” 『이베로아메리카연구』(서울대학교 스페인중남미
연구소) 2:97-110.
- 이영조
1991 “브라질의 경제안정화 : 영속적 실패의 정치경제학,” 『이베로아메리카연구』(서울
대학교 스페인중남미연구소) 2:32-75.
- 정재영, 변상진, 박윤재
1992 『한국기업의 대미진출확대방안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무역연구소).
- 조희문
1993 『남미공동시장(MERCOSUR)』, 대한무역진흥공사.
- 한국무역협회
1992 『한국기업의 대미진출확대방안』, 통상 92-04.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연구소
1990 『국별투자환경』.
- Almeida, Paulo Roberto de (coord.)
1992 *MERCOSUL. Textos Básicos*, Brasília : IPRI.
- 1992 “NAFTA : Um Bloco Comercial em Construção”, *RBCE : Revista Brasileira de
Comércio Exterior*, Rio de Janeiro, Ano VIII, no 33, Out-Nov-Dec : 70-72.
- 1992 “Solução de Controvérsias no MERCOSUL : o Protocolo de Brasília ao Tratado de

- Assunçao", *Boletim de Integração Latino-Americana*, no 4, Jan-Mar : 9-11.
- 1993 "Dois anos de processo negociador no MERCOSUL : caminhos e instrumentos da integração", *Boletim de Integração Latino-Americana*, numero especial.
- Aragão, E Frotá, Luciara Silveira de
- 1991 *Brasil-Argentina : divergências e convergências*, Brasília : Centro Gráfico do Senado Federal.
- Barbosa, Rubens Antonio
- 1991 *America Latina em Perspectiva : a integração regional da retórica à realidade*, São Paulo : Edições Aduaneiras.
- Barham, John
- 1994 "Mercosur pact on customs", *Financial Times*, Aug. 8.
- Barham, John and Angus Foster
- 1994 "Teething troubles continue to nag at Mercosur market", *Financial Times*, Jan. 7.
- 1994 "Wrapped in a mutual embrace", *Financial Times*, Jan. 17.
- Barham, John and Patrick McCurry
- 1994 "Mercosur four limp to customs union signing", *Financial Times*, August 5.
- Bergsman, Joel
- 1970 *Brazil : Industrialization and Trade Polici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Dinsmoor, James
- 1990 *Brazil : Responses To The Debt Crisis : Impact on Savings, Investment And Growth*, Washington, D.C.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El-Agraa, Ali M.
- 1989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London : Macmillan, 1989.
- Ernst and Young
- 1992 *Doing Business in Brazil*, New York.
- Garre Copello, Belter
- 1991 *El Tratado de Asunción y el Mercado Común del Sur : los megabloques económicos y América Austral*, Montevidéu : Editorial Universidad.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1992 *Regional Trade Arrangements*, Occasional Paper 93, Washington D.C.
- Jennings, Horace
- 1994 "Brazilian Trade Sets New Highs As Import Barriers Are Lowered", *Business America*, May, 16-17.
- Mye, Randy
- 1994 "Argentina : A Growing Economy Currently in Transition", *Business America*, May, 14-16.

- Oxford Analytica
1994 Latin America : Mercosur Advance, Aug. 12.
Quelch John A., Robert D. Buzzell and Eric R. Salama
1990 *The Marketing Challenge of 1992*, Reading, Mass. : Addison-Wesley Publishing Co.
Rock, David
1987 *Argentina 1516-1987 : From Spanish Colonization to Alfonsin*,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1993 *Argentina : EIU Country Profile 1992-93*, London.
1993 *Brazil : EIU Country Profile 1992-93*.
1994 *Argentina 1993-94 Country Profile*.
1994 *Brazil : EIU Country Report 1st quarter 1994*.
1994 *Paraguay : EIU Country Report 1st quarter 1994*.
1994 *Uruguay : EIU Country Report 1st quarter 1994*.
- Tuller, Lawrence W.
1993 *The World Markets Desk Book : A Region-by-Region Survey of Global Trade Opportunities*, New York : McGraw-Hill, Inc.
- United States Embassy
1993 *Economic Trends Report : Argentina*, Buenos Aires.
- Williamson, Edwin
1992 *The Penguin History of Latin America*, London : Penguin Books.

Background and Prospect of the MERCOSUR

Yun-Jae Park and Heon Deok Yoon

On March 26, 1991, in Asuncion, the four South American countries — Argentina, Brazil, Paraguay and Uruguay — signed an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mmon market of the southern cone(MERCOSUR)". This common market was to involve 1) the free movement of goods, services and factors of production among the member countries through the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and non-tariff restrictions, 2) establishment of a common external tariff and adoption of a common trade policy in relation to the Third States or groups of States, and 3) coordination of macroeconomic and sectoral policies between the States Parties in such areas as foreign trade, agriculture, industry, fiscal and monetary matters.

In their effort to accomplish in only four years what the European countries have achieved in forty years, these countries came across many unexpected problems. Conflicts over the issues of common external tariff, sensitive products, and economic policy measures among the member countries reached so high a level that some experts predicted that the MERCOSUR would be one of the unsuccessful attempts for economic integration made in the region. However, on August 5, 1994, at the summit conference held in Buenos Aires, the four member countries overcame a long-standing dispute and agreed upon a compromise formula allowing the creation of a customs union on January 1, 1995.

At present, the impact of the MERCOSUR in the arena of international trade is not considered to be so far-fetched. However, if these countries keep marching toward more liber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privatization, the MERCOSUR may evolve as one of the influential players in the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The background of the MERCOSUR creation, conflicts and compromises among the member countries, their trade and investment climates, their economic relations with Korea, the impact of the MERCOSUR creation, and the prerequisites for its successful operation have been reviewed and analyzed.

박윤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주소 : (156-743)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5동 1-1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Tel : 820-0564(O), (0342)713-6696(H), Fax : 824-4384

윤현덕, 숭실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주소 : (156-743)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5동 1-1 숭실대학교 무역학과

Tel : 820-0576(O), 792-6438(H), Fax : 824-4384